

장모-사위 간 관계 변인이 사위의 관계 만족도 및 부정적 지각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Relationship Variables between Mother-in-Law and Son-in-Law
on Son-in-Law's Relation-Satisfaction and Negative Perception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전 세 송
강 사 김 수 경
교 수 전 귀 연

Department Child & Family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Student : Se-Song Jeon

Lecturer : Sue-Kyung Kim

Professor : Gwee-Yeon Jeo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론 및 제언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및 논의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relationship variables between mother-in-law and son-in-law on a son-in-law's relation-satisfaction and negative perception. The son-in-law subjects were 319 married men aged 20-70 years, who were living their mother-in-laws in Daegu, Kyungpook, the Seoul National Capital Area(Seoul, Kyeonggy, Incheon), Busan or Kyungnam.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 son-in-law's relation-satisfaction of his relationship with his mother-in-law according to the number of children and (2) mutual support and a mother-in-law's conflicting attitude toward her son-in-law affected the son-in-law's relation-satisfaction and negative perception of his relationship with his mother-in-law.

주제어(Key Words) : 장모-사위(mother-in-law and son-in-law), 관계 변인(relationship variables), 관계 만족도(relation-satisfaction), 부정적 지각(negative perception)

I. 서론

장모-사위 관계는 고부관계와 더불어 결혼을 통해 형성되는 인척 관계에 해당한다. 이는 자기 자신이 선택한 관계가 아니라 배우자와 부부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따라오는 부수적인 관계로서 부부관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영숙, 박경란, 2010). 특히 부부가 결혼 후 배우자 가족과 겪는 관계 중 가장 가까운 인척관계는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로서 고부관계와 장모-사위관계에서의 갈등은 부부의 결혼적응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유연지, 2006).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갈등을 경험하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사회 참여 증가로 가족 내 여성의 지위가 높아짐과 동시에 결혼한 딸에 대한 친정어머니의 관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장모-사위 관계는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조성연, 전효정, 백경숙, 전연진, 옥경희, 2009). 방송매체나 신문 등에서 장모와 사위 간의 갈등에 관한 기사가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동아일보, 2003. 11. 27; 한국경제, 2007. 08. 23), 정작 그 실태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부쩍 늘어난 장모-사위간의 갈등은 아직 사회적인 공감대가 부족하고, 정확한 통계 자료도 없어 그 양상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단지 고부갈등의 원인 제 공자로 못된 시어머니가 부각되었듯이 장모-사위의 갈등에서는 드센 장모가 악역으로 비치게 되어 장모-사위 갈등은 우리 사회에 팽배한 고부갈등과 많은 부분이 유사할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한겨레, 2005. 07. 26).

현재까지 장모-사위 관계와 관련되어 수행된 연구는 지극히 부족한 실정으로, 우미향(2003)은 사위를 대상으로 장인·장모 부양 부담감을 연구하였고, 유연지(2006)와 정희정(2009)은 며느리와 사위를 대상으로 고부갈등과 웅서갈등(장모-사위 갈등)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원가족 분화와 결혼만족도를 살펴보았을 뿐이다. 반면에 고부관계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고부갈등의 실태와 원인(성명옥, 이혜자, 2002; 이경애, 1981; 이기숙, 1985), 고부갈등의 조정 및 대처 행동(박경란, 1993; 박현옥, 1990; 지상순, 1988), 고부갈등의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박경옥, 1999; 이정연, 1990; 홍숙자, 유은희, 전길양, 1996) 등이 연구되었다. 이처럼 인척관계에 관한 연구는 며느리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사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고부간의 갈등에 초점을 두고 부정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연구가 많았다. 이는 사회에 퍼져있던 고부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오히려 강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박소영, 2005). 그러나 모든

인간관계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함께 지니고 있듯이, 장모-사위 관계에서도 긍정적 관계를 형성한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따라서 초기 고부관계 연구처럼 고부갈등의 실태와 그 원인 규명에 천착하기보다는 보다 넓은 시각으로 장모-사위 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친족관계가 차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여권의 신장과 더불어 처가(친정)의 영향이 커지면서 본가(시가)와는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관계를 갖는 반면 처가(친정)와는 자발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장남과 동거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장남 아닌 기혼아들이나 딸과의 동거가 증가하고 있으며(이영숙, 박경란, 2010),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친정살이'를 하거나(서울경제, 2010. 02. 24; 한겨레, 2005. 07. 26; 헤럴드 경제, 2009. 04. 21), 동거하지는 않더라도 처가의 인척들이 근 거리에 모여 살면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도움을 주고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처가와와의 교류 증가는 장모-사위 관계에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노부모-성인자녀의 관계는 호혜적 형태를 띠게 되는데, 노부모가 성인자녀를 도와주거나 성인자녀가 노부모를 도와주는 정도가 높을수록 노부모가 지각하는 결속도가 높은 결과를 보고한다(최정혜, 1992).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에 교환되는 도움의 정도는 서로의 유대관계나 결속력을 확인하게 하는 주요 기능으로 작용하며(이영숙, 박경란, 2010), 각자의 심리적 복지와의 관련되어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기만 하는 노부모들에 비해 자녀와 지원을 주고받는 노부모들의 생활만족도가 높고, 자녀에게 지원을 주기만 하거나 자녀와의 지원교환이 없는 노부모들의 생활만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익기, 김정석, 2000). 자녀들의 입장에서 노부모와 지원을 주고받는 양방향에 속하는 경우 심리적 복지감이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한민아, 한경혜, 2004). 따라서 장모-사위 관계에서도 상호간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 지지 정도가 사위의 관계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장모의 발언권이 강해지면서 사위의 생활습관, 성격을 지적하거나 딸의 입장에서 사위의 의사결정권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사위의 경제력을 타인과 비교하고 간섭하는 등의 갈등적 태도로 인해 사위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사위를 대하는 장모의 이러한 갈등적 태도는 장모-사위 관계의 부정적인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딸이 노부모 부양을 하는 경우가 많은 서구에서는 사위가 장모에 대한 부양 부담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거나 가족위기를 느끼며 부부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므로 장모와의 관계가 불편하다고 하였다(박정운, 1993). 부양 부

담감이란 부양자가 피부양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육체적·경제적·심리적 부담감을 의미하는 것으로(우미향, 2003), 송현애(1993)의 연구에서도 노인을 부양하는 우리나라 자녀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고 나타내었다. 이처럼 부양부담감은 성인자녀의 입장에서 부양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반응과 연결되고 나타나고 있다(한민아, 한경혜, 2004). 따라서 사위가 느끼는 장모에 대한 부양 부담감이 장모-사위 관계의 관계 만족도와 부정적 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혼 딸과의 관계가 긴밀해짐에 따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장모-사위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 부정적인 측면에만 치우치지 않고 긍정적,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장모-사위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 변인으로 상호 지지, 사위를 대하는 장모의 갈등적 태도 및 부양 부담감을 선정하였고 이 변인들이 사위가 지각하는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와 부정적 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위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에 따라 사위의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관계 만족도와 부정적 지각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장모-사위 간 관계 변인(상호 지지, 사위를 대하는 장모의 갈등적 태도, 부양 부담감)이 사위의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관계 만족도와 부정적 지각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경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부산·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20대에서 60대까지의 기혼 남성 중 장모가 생존해 있는 사위 31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은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사위의 연령은 35세~45세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고학력자 및 사무 종사자가 가장 많았으며, 월평균 소득은 251만원~350만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61.5%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맞벌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보다 더 많았고, 결혼지속년수의 경우, 5년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가족생활주기의 경우 첫 자녀 유아기 이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자녀수의 경우 2명이 53.3%로 가장 많았으며, 주거형태의 경우 본가 및 처가와 독립한 경우가 94.4%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동거 가족의 경우 배우자 및 자녀와 살고 있는 사위가 86.5%를 차지했고, 장모와의 동거여부를 살펴보면, 동거하는 경우가 4.4%이고,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95.6%의 비율을 나타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배경

(n = 319)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연령	35세 미만	93(29.2)	결혼 기간	5년 미만	103(32.3)
	35세~45세 미만	149(46.7)		5년~10년 미만	79(24.8)
	45세 이상	77(24.1)		10년~15년 미만	50(15.7)
교육 수준	고졸이하	45(14.1)	가족 생활 주기	15년 이상	87(27.3)
	전문대학 졸업	56(17.6)		첫 자녀 유아기 이하	165(51.7)
	4년제 대학 졸업	149(46.7)		첫 자녀 학동기	68(21.3)
직업 (N = 315)	대학원 이상	69(21.6)	자녀수	첫 자녀 청소년기	43(13.5)
	전문 관리직	98(31.1)		첫 자녀 진수기 이상	43(13.5)
	사무직	125(39.7)		1명	121(37.9)
월평균 소득	생산 판매직	92(29.2)	2명	170(53.3)	
	150만원 이하	15(4.7)	3명 이상	28(8.8)	
	151만원~250만원	90(28.2)	주거 형태	독립	301(94.4)
	251만원~350만원	107(33.5)		본가 부모님 집	12(3.8)
	351만원~450만원	52(16.3)		처가 부모님 집	6(1.9)
451만원 이상	55(17.2)	동거 가족	배우자 및 자녀	276(86.5)	
종교 (N = 317)	기독교		95(30.0)	배우자 및 자녀+처가 식구	21(6.6)
	천주교		21(6.6)	배우자 및 자녀+본가 식구	22(6.9)
	불교		79(24.9)	장모	14(4.4)
	무교	122(38.5)	동거 여부	182(57.1)	
맞벌이 여부	하고 있다	137(42.9)	동거 한다	14(4.4)	
	하고 있지 않다	182(57.1)	동거 안 한다	305(95.6)	

2. 측정도구

1) 사위의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관계 만족도와 부정적 지각 척도

(1) 사위의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관계 만족도 척도

사위의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관계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위가 장모-사위 관계상에서 느끼는 친밀감, 편안함, 유쾌함, 만족감 등으로 본 연구자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를 가족학 전공 교수 및 박사학위 소지자 3인의 문항검토를 받은 후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은 19 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한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그 결과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5점 Likert형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위가 장모에게 가치롭고 중요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고 장모와 함께 있을 때 사위가 장모로부터 심리적 친밀감, 유쾌함 등을 느끼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 α 계수가 .98이었다.

(2) 사위의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부정적 지각 척도

사위의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부정적 지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위가 장모-사위 관계상에서 느끼는 서운함, 분노, 짜증, 불쾌함 등으로 본 연구자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를 가족학 전공 교수 및 박사학위 소지자 3인의 문항검토를 받은 후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은 16 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한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그 결과는 <부록 2>에 제시되어 있다. 5점 Likert형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장모가 원망스럽고 증오스러운 존재라고 인식하고 장모와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심리적 거리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 α 계수는 .97이었다.

2) 장모-사위 관계 변인

(1) 상호 지지 척도

상호 지지란 장모-사위 간에 주고받는 경제적·서비스적·정서적 도움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문항을 구성하고 가족학 전공 교수 및 박사학위 소지자 3인의 문항검토를 받은 후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은 30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형이며 요인 분석한 결과 6요인으로 추출되었고, 그 결과는 <부록 3>에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요인은 '장모로부터 받는 정서적 도움'으로 명명하였다. 6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위가 장모로부터 받는 정서적 도움이 많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요인은 '장모에게 주는 정서적 도움'으로 명명하였다. 6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위가 장모에게 주는 정서적 도움이 많음을 의미한다. 세 번째 요인은 '장모에게 주는 서비스적 도움'으로 명명하였다. 5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위가 장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적 도움이 많다는 것을 의

미한다. 네 번째 요인은 '장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도움'으로 명명하였다. 4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위가 장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도움이 많음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 요인은 '장모에게 주는 경제적 도움'으로 명명하였다. 5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위가 장모에게 주는 경제적 도움이 많음을 의미한다. 여섯 번째 요인은 '장모로부터 받는 서비스적 도움'으로 명명하였다. 4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위가 장모로부터 받는 서비스적 도움이 많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 α 계수가 각각 .92, .90, .85, .84, .79, .87이었다.

(2) 사위를 대하는 장모의 갈등적 태도 척도

사위를 대하는 장모의 갈등적 태도란 사위 및 사위의 주변인을 대하는 장모의 역기능적이거나 부정적인 행동 양식 및 반응을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문항을 구성하고 가족학 전공 교수 및 박사학위 소지자 3인의 문항검토를 받은 후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은 36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형이며 요인 분석한 결과 8요인으로 추출되었고, 그 결과는 <부록 4>에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요인은 '사위에 대한 불만 및 부당한 대우'로 명명하였다. 13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위를 대하는 장모의 태도가 부당하고 불만스러움이 많아 갈등적 요소가 많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요인은 '부부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간섭'으로 명명하였다. 6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위 및 딸(아내)을 대하는 태도에 간섭이 심해 갈등적 요소가 많음을 의미한다. 세 번째 요인은 '장모의 이기적 태도'로 명명하였다. 4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장모 본인의 안녕과 대접에만 신경을 쓰는 경향이 높아 갈등적 요소가 많음을 의미한다. 네 번째 요인은 '장모의 맹목적 손자녀 사랑'으로 명명하였다. 3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장모가 손자녀(사위의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무조건적 허용의 방식을 보여 갈등적 요소가 많음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 요인은 '가정의례의 지나친 강조'로 명명하였다. 3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장모가 예법과 관습을 강조함으로써 갈등적 요소가 많아짐을 의미한다. 여섯 번째 요인은 '생활방식, 성격, 종교 차이'로 명명하였다. 3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장모와 사위 간 서로의 다른 점으로 인해 갈등적 요소가 많아짐을 의미한다. 일곱 번째 요인은 '결혼 전 태도'로 명명하였다. 2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 당시 장모가 사위를 대했던 태도로 인해 갈등적 요소가 많아짐을 의미한다. 여덟 번째 요인은 '손자에 대한 거부장적 태도'로 명명하였다. 2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남아선호사상에 근거한 손자 중시 태도로 인해 갈등적 요소가 많아짐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 α 계수가 각각 .93, .81, .83, .86, .86, .66, .71, .85이었다.

(3) 부양 부담감 척도

부양 부담감이란 장모-사위 관계에서 비용이 보상보다 많아져 생긴 결과로서 사위가 장모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경제적·서비스적·정서적 측면의 부정적 감정 및 반응을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문항을 구성하고 가족학 전공 교수 및 박사학위 소지자 3인의 문항 검토를 받은 후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은 16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형이며 요인 분석한 결과 3요인으로 추출되었고, 그 결과는 <부록 5>에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요인은 '서비스적 부양 부담감'으로 명명하였다. 7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장모의 시중들기, 건강 돌보기, 신체적 도움 등에 대한 부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요인은 '경제적 부양 부담감'으로 명명하였다. 5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장모 부양으로 인한 금전적, 물질적 부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세 번째 요인은 '정서적 부양 부담감'으로 명명하였다. 4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장모 부양으로 인한 책임감,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 α 계수가 각각 .93, .88, .90이었다.

3. 자료수집절차

본 조사는 질문지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도,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질문지 작성상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한 기타 지역의 기혼 남성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완성된 질문지를 대구·경북 지역,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 부산·경남 지역의 장모가 생존하며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기혼 남성을 대상으로 450부를 배포하여 회수하였다. 직접 방문과 우편 회수를 병행하였으며, 총 389부(회수율 86.4%)를 회수하였다. 이 중 응답이 누락된 질문과 자녀가 없는 대상자의 질문지를 제외시켜 총 319부(응답율 70.9%)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사용한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가족학 전공 교수 및 박사학위 소지자 3인의 내용타당도 검증 후, varimax 회전방식을 사용하여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에 의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에 따른 사위의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관계 만족도와 부정적 지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집단 간의 개별 비교를 위하여 Tukey의 사후 검증을 사용하였다. 중다회귀 분석에 앞서 각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확인을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사위의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관계 만족도와 부정적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표 2> 사위의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지각(관계 만족도, 부정적 지각) 및 관련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변인	평균	표준 편차	가능한 점수범위	
지각		관계 만족도(19문항)	3.60	.75	1~5점	
		부정적 지각(16문항)	1.50	.69	1~5점	
장모-사위 관계 변인	상호 지지	장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도움(4문항)	2.46	1.02	1~점	
		장모에게 주는 경제적 도움(5문항)	2.96	.83		
		장모로부터 받는 서비스적 도움(4문항)	3.38	1.04		
		장모에게 주는 서비스적 도움(5문항)	2.90	.87		
		장모로부터 받는 정서적 도움(6문항)	3.62	.78		
			장모에게 주는 정서적 도움(6문항)	3.07	.80	
	사위에 대한 장모의 갈등적 태도	사위에 대한 불만 및 부당한 대우(13문항)	1.62	.66	1~5점	
		장모의 이기적 태도(4문항)	1.53	.66		
		장모의 맹목적 손자녀 사랑(3문항)	2.25	.92		
		가정의례의 지나친 강조(3문항)	2.10	.90		
		부부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간섭(6문항)	1.76	.68		
		생활방식, 성격, 종교 차이(3문항)	2.74	.83		
		손자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2문항)	1.61	.84		
		결혼 전 태도(3문항)	2.50	.80		
부양 부담감	경제적 부양 부담감(6문항)	1.79	.71	1~5점		
	서비스적 부양 부담감(7문항)	1.55	.66			
	정서적 부양 부담감(7문항)	1.62	.61			

〈표 3〉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에 따른 사위의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관계 만족도와 부정적 지각의 다변량분산분석 결과

Effect	Wilks λ	Approx. F	가설 자유도	오차 자유도	유의확률
연령	.99	.64	4.00	568.00	.63
교육수준	.99	.50	6.00	568.00	.81
직업	.99	.83	4.00	568.00	.51
월평균소득	.99	.34	8.00	568.00	.95
맞벌이 여부	1.00	.27	2.00	284.00	.76
결혼지속년수	.99	.47	6.00	568.00	.83
가족생활주기	.99	.49	6.00	568.00	.82
자녀수	.97	2.49	4.00	568.00	.04
장모 동거여부	.99	1.38	2.00	284.00	.25

〈표 4〉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에 따른 사위의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관계 만족도와 부정적 지각의 단변량분산분석 결과

	집단(빈도)	관계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자녀수	1명(121)	3.53 ^b	.85
	2명(170)	3.61 ^{ab}	.67
	3명이상(28)	3.89 ^a	.72
<i>F</i>		4.52*	

* $p < .05$

Ⅲ. 연구결과 및 논의

사위의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지각(관계 만족도, 부정적 지각) 및 관련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및 가능한 점수범위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 의하면, 사위의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지각은 관계에 만족하는 경우($M = 3.60, SD = .75$)가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우($M = 1.50, SD = .69$)보다 높았다. 장모-사위 관계 변인 가운데 상호지지의 경우, 사위가 장모로부터 받는 정서적 도움($M = 3.62, SD = .78$)이 가장 높고, 사위가 장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도움($M = 2.46, SD = 1.02$)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위에 대한 장모의 갈등적 태도를 보면, 생활방식, 성격, 종교 차이($M = 2.74, SD = .83$)가 가장 높고, 장모의 이기적 태도($M = 1.53, SD = .66$)가 가장 낮았다. 부양 부담감의 경우, 경제적 부양부담감($M = 1.79, SD = .71$)이 가장 높고, 서비스적 부양부담감($M = 1.55, SD = .66$)이 가장 낮았다.

1.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에 따른 사위의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관계 만족도와 부정적 지각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에 따른 사위의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관계 만족도와 부정적 지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위의 장모-사위 관계에 대

한 관계 만족도와 부정적 지각에 자녀수($F = 2.49, P < .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종속변인별로 단변인변량분석과 Tukey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인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위의 자녀수에 따라 사위의 장모-사위 관계의 관계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수가 1명인 사위보다 3명 이상인 사위가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관계 만족도가 더 높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장모의 가사 및 자녀 양육 도움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자녀수가 많을수록 장모의 도움이 더 많아질 것이고 이로 인해 장모에 대한 고마움으로 사위의 긍정적 지각 정도가 높아졌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자녀수가 많을수록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져 장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 즉, 사위의 수입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수입을 통계한 공변량분석 결과를 살펴본 결과, 자녀수에 따른 사위의 장모-사위 관계만족도는 여전히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 = 3.14, P < .05$).

이처럼 자녀수가 장모-사위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위의 결혼만족도와 같은 다른 조절 변인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2. 장모-사위 관계 변인(상호 지지, 사위를 대하는 장모의 갈등적 태도, 부양 부담감)이 사위의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관계 만족도와 부정적 지각에 미치는 영향

장모-사위 관계 변인(상호 지지, 사위에 대한 장모의 갈등적 태도, 부양 부담감)이 사위의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관계 만족도 및 부정적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모-사위 관계 변인 중에서 사위의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상호 지지에서 장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도움($\beta = .12$), 장모로부터 받는 정서적 도움($\beta = .37$), 장모에게

〈표 5〉 사위의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관계 만족도 및 부정적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장모-사위 관계 변인의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관계 만족도			부정적 지각			
		B	표준오차	β	B	표준오차	β	
장모-사위 관계 변인	상호 지지	장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도움	.09	.03	.12**	-.01	.03	-.01
		장모에게 주는 경제적 도움	.05	.03	.05	-.01	.03	-.01
		장모로부터 받는 서비스적 도움	.00	.03	.00	.00	.03	.00
		장모에게 주는 서비스적 도움	.03	.04	.03	-.01	.04	-.01
		장모로부터 받는 정서적 도움	.36	.05	.37***	-.09	.05	-.11
		장모에게 주는 정서적 도움	.20	.05	.21***	-.11	.05	-.13*
	사위를 대하는 장모의 갈등적 태도	사위에 대한 불만 및 부당한 대우	-.17	.06	-.14*	.48	.06	.46***
		장모의 이기적 태도	-.16	.05	-.14**	.23	.05	.22***
		장모의 맹목적 손자녀 사랑	.02	.03	.03	-.02	.03	-.02
		가정의례의 지나친 강조	.04	.03	.05	-.05	.03	-.06
		생활방식, 성격, 종교 차이	-.03	.03	-.04	.03	.03	.04
		손자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	-.04	.04	-.04	.03	.04	.03
	부양 부담감	결혼전 태도	-.04	.03	-.05	.01	.03	.01
		경제적 부양 부담감	.07	.05	.06	-.01	.05	-.01
		정서적 부양 부담감	-.07	.06	-.06	.05	.06	.05
	F		42.74***			32.20***		
	R ²		.68			.61		

* $p < .05$ ** $p < .01$ *** $p < .001$

주는 정서적 도움($\beta = .21$), 사위를 대하는 장모의 갈등적 태도에서 사위에 대한 불만 및 부당한 대우($\beta = -.14$), 장모의 이기적 태도($\beta = -.14$)로 나타났다. 즉, 장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도움이 많을수록, 장모로부터 받는 정서적 도움이 많을수록, 장모에게 주는 정서적 도움이 많을수록, 사위에 대한 불만 및 부당한 대우가 적을수록, 장모의 이기적 태도가 적을수록 사위가 장모-사위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모-사위 관계 변인은 사위의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관계 만족도를 68%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모-사위 관계 변인 중에서 사위의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부정적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상호 지지에서 장모에게 주는 정서적 도움($\beta = -.13$), 사위를 대하는 장모의 갈등적 태도에서 사위에 대한 불만 및 부당한 대우($\beta = .46$), 장모의 이기적 태도($\beta = .22$)로 나타났다. 즉, 장모에게 주는 정서적 도움이 적을수록, 사위에 대한 불만 및 부당한 대우가 많을수록, 장모의 이기적 태도가 많을수록 사위가 장모-사위 관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모-사위 관계 변인은 사위의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부정적 지각을 61%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호 지지에서 장모와 사위 간 주고받는 정서적 도움이 많을수록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관계 만족도가 높고, 장모에게 주는 정서적 도움이 적을수록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부정적 지각이 높았다. 이는 세대 간 지원교환유형과 성인자녀의 심리적 복지감을 연구한 한민아와 한경혜(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정서적 지원 교환에 있어서 부모에게 도움을 주는

것과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 양방향에 속하는 성인자녀의 심리적 복지감이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정서적 교류가 높을수록 장모-사위 간의 갈등이 낮게 나타난다는 박정윤(1993)의 연구결과와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애정적 결속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갈등이 더 낮게 나타난 최정혜(1992)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한편, 상호 지지에서 장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도움은 사위의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관계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부정적 지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에 일어나는 서비스의 교환과 재정적 원조 등의 정도를 의미하는 기능적 결속도를 연구한 최정혜(1992)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최정혜(1992)의 연구에서는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기능적 결속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갈등이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 외국의 경우 노인이 성인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Stoller, 1983), 노부모-성인자녀 간 자원흐름 패턴이 성인자녀가 그들의 부모에게 주기보다 받고 있으며(Adams, 1968), 노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재정적 원조를 더 많이 제공해 항상 도와주는 입장에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Cheal, 1983)와도 다소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앞서 나열한 연구 결과들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노부모의 입장에서 지각한 것으로 수혜자인 성인자녀의 지각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즉, 노인과 성인자녀관계는 그들 각자가 가진 자원의 정도에 따라 도움의 호혜성이 달라질 것이다. 만약 사위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원을 가진 장모가 있을 경우 장모-사위 관계의 역학

적 구조를 바꿀 것이고, 이는 사위의 장모-사위 관계의 관계 만족도와 부정적 지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장모와 사위 간에 주고받는 도움의 정도를 보다 세분화시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사위를 대하는 장모의 갈등적 태도에서 사위에 대한 불만 및 부당한 대우가 적을수록, 장모의 이기적 태도가 적을수록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관계 만족도가 높고, 사위에 대한 불만 및 부당한 대우가 많을수록, 장모의 이기적 태도가 많을수록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부정적 지각이 높았다.

장모가 사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은 장모의 갈등표출방식일 수 있으므로 가족 간의 갈등적 요소와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즉, 장모-사위 간의 관계가 갈등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사위도 장모에 대해 부정적인 지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장모의 이기적 태도와 사위의 관계 만족도 및 부정적 지각과의 관계는 사위 본인이 지니고 있는 장모에 대한 기대치, 즉 어른에 대한 이미지를 장모가 보여주지 못한 데서 오는 갈등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갈등은 어디까지나 두 사람 이상의 대인관계에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이해관계가 존재할 때 나타나는 대립현상(유영주, 2004)인 만큼 장모가 지닌 불만적 요소만 고려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장모와 사위 간의 갈등은 각자의 입장에서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아 불만을 가지면서 불거져 나온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불만의 기저에는 사위의 배우자 즉 장모의 딸이 개입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추후 연구에서는 중간 매개자인 딸의 입장을 고려한 장모-사위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더 나아가 사위 측면만 아니라, 장모 측의 연구도 이루어져 쌍방이 느끼는 갈등의 요소를 비교 분석하여 보다 긍정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먼저, 연구문제1에서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에 따라 사위의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관계 만족도와 부정적 지각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자녀수에 따라 사위의 장모-사위 관계의 관계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장모의 도움이 더 많아지면서 이로 인한 장모에 대한 고마움으로 사위의 관계 만족도 정도가 높아진 것이라 생각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와 같은 다른 조절변인이 있는지 보다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연구문제 2에서 장모-사위 관계 변인(상호 지지, 사위를

대하는 장모의 갈등적 태도, 부양 부담감)이 사위의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관계 만족도와 부정적 지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상호 지지에서 장모에게 주는 정서적 도움, 사위를 대하는 장모의 갈등적 태도에서 사위에 대한 불만 및 부당한 대우, 장모의 이기적 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도움과 장모로부터 받는 정서적 도움은 사위의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관계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부정적 지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노부모와 성인자녀관계는 각자가 가진 자원의 정도에 따라 도움의 호혜성이 달라져 장모-사위 관계의 역학적 구조를 바꾸어 관계 만족도와 부정적 지각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장모와 사위 간에 주고받는 도움의 정도를 보다 세분화시켜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며, 특히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사위의 관계 만족도와 부정적 지각 모두에 영향을 미친 정서적 지지에 관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고부갈등처럼 갈등의 요인에 관해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연구에서는 중간 매개자인 딸과 장모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여 양방이 느끼는 갈등의 요소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최근 가족 형태와 관계의 변화로 인해 장모-사위 간 갈등이 부각되면서 부부의 결혼 적응 및 결혼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장모-사위관계에 대한 연구는 극히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본 연구는 보다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장모-사위 연구를 촉발시키는 계기와 함께 이후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긍정적이고 건강한 장모-사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장모-사위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건강한 부부생활의 영위와 이혼의 방지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익기, 김정석(2000). 세대간 자원교환의 형태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20(2), 155-168.
- 동아일보(2003. 11. 27). “장모님, 제 아내 돌려 주세요”... 늘 어가는 장모-사위 갈등.
- 박경란(1993). 맘머느리가 인지하는 시모 부양 긴장. **한국노년학**, 13(1), 75-89.
- 박경옥(1999). 고부갈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소영(2005). 며느리들의 시어머니와의 관계 경험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정윤(1993). 생활감정과 생활교류를 중심으로 한 고부관계와 장모사위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현옥(1990). 고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에 관한 연구 -고부동거가족의 자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경제(2010. 02. 24). 내가 벌어 내가 모신다...사라지는 '남아 선호'.

성명옥, 이해자(2002). 시어머니가 지각하는 고부갈등이 제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학회**, 18(1), 185-206.

송현애(1993). 며느리의 노부모 부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우미향(2003). 사위의 장인·장모 부양 부담감연구: 부모 부양 의식 및 상호교류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연지(2006). 부부의 원가족 특성과 고부·옹서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영주(2004). **새로운 가족학**. 서울: 신정.

이경애(1981).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 서울에 거주하는 시모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기숙(1985). 한국 가정의 고부갈등 발생원에 대한 요인분석.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영숙, 박경란(2010). **현대 가족관계학**. 서울: 신정.

이정연(1990). 며느리가 인지한 고부갈등과 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135-146.

정희정(2009). 원가족 분화와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 고부·옹서갈등을 매개변인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성연, 전효정, 백경숙, 전연진, 옥경희(2009). **가족관계**. 경기도: 양서원.

지장순(1988). 며느리의 취업여부에 따른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정혜(1992).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겨레(2005. 07. 26). 장모와 사위 사이 '역고부갈등'.

한국경제(2007. 08. 23). 처가 스트레스' 고부갈등 못잡다.

한민아, 한경혜(2004). 세대 간 지원 교환 유형과 성인 자녀의 심리적 복지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1), 135-152.

헤럴드경제(2009. 04. 21). 커지는 장모-사위 갈등 모계 사회 新 풍속도? 신(新) 고부갈등...장모 vs 사위.

홍숙자, 유은희, 전길양(1996). 중년 며느리를 위한 고부관계 향상 교육 프로그램. **대한가정학회지**, 34(5), 293-305.

Adams, B. N.(1968). *Kinship in an urban setting*. Chicago: Markham.

Cheal, D.(1983). Intergenerational family transf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4), 805-814.

Stoller, E.(1983). Parental caregiving by adul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851-858.

접수일: 2011년 5월 30일
 심사시작일: 2011년 6월 3일
 게재확정일: 2011년 7월 11일

〈부록 1〉 사위의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관계만족도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명	문항번호	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설명량(%)
관계만족도	12	나는 장모와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한다.	.88		
	11	나와 장모와의 관계는 만족스럽다.	.87		
	15	나의 생애에 장모를 만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86		
	14	나는 장모를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	.86		
	10	나는 장모와 유쾌하게 지낸다.	.86		
	9	나는 장모와 같이 시간을 보낼 때 재미있다.	.85		
	13	나는 장모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85		
	7	장모는 내게 용기를 북돋워준다.	.85		
	4	나와 장모 사이에는 친밀감이 느껴진다.	.85		
	5	나는 장모와 함께 있을 때 즐겁다.	.85	13.27	69.86
	19	장모와 나는 서로 의지가 된다.	.84		
	18	장모와 나는 서로를 믿는다.	.84		
	8	장모는 나를 의미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주신다.	.84		
	3	나는 장모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	.83		
	6	장모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존재라고 느껴진다.	.81		
	16	장모는 내게 중요한 사람이다.	.80		
	1	나는 장모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80		
	17	장모는 항상 내게 이득이 되는 것을 먼저 생각해주신다.	.78		
	2	나는 장모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느낀다.	.75		

〈부록 2〉 사위의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부정적 지각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명	문항번호	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설명량(%)
부 정 적 지 각	10	장모와 나의 관계는 비판적이다.	.90	11.77	73.56
	5	나는 장모를 좋아하지 않는다.	.90		
	9	나는 장모와 함께 있으면 불행하다고 느껴진다.	.90		
	14	나와 장모와의 관계는 불만족스럽다.	.89		
	6	나는 장모에 대해 화가 난다.	.89		
	3	나는 장모를 원망한다.	.88		
	7	나는 장모가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이었으면 하고 바란다.	.88		
	8	나는 장모를 부끄럽게 여긴다.	.87		
	13	장모는 내게 불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진다.	.86		
	4	나는 장모를 미워한다.	.85		
	2	나는 장모가 다른 장모였으면 하고 바란다.	.84		
	1	나는 장모를 싫어한다.	.83		
	16	장모의 행동은 나를 당황스럽게 한다.	.83		
	11	장모와 나 사이에는 거리감이 느껴진다.	.82		
	12	나는 장모와 같이 있을 때 지루하다고 느껴진다.	.79		
15	나는 장모와 같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낀다.	.79			

〈부록 3〉 상호지지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명	문항번호	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설명량 (%)	누적 설명량(%)
장모로부터 받는 정서적 도움	19	장모는 나의 고민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한다.	.56	10.47	34.91	34.91
	20	장모는 나의 잘못과 실수를 잘 감싸주신다.	.77			
	21	장모는 나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신다.	.87			
	22	장모는 나를 사랑하며 신뢰하신다.	.86			
	23	장모는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조언해 주신다.	.75			
	24	장모는 나를 염려해 주는 말이나 조언을 해 주신다.	.77			
장모에게 주는 정서적 도움	25	나는 장모의 고민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한다.	.56	2.92	9.73	44.64
	26	나는 문제가 생길 때 장모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의논드린다.	.75			
	27	나는 장모가 외롭지 않도록 말상대가 되어 드린다.	.67			
	28	나는 장모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조언해 드린다.	.79			
	29	나는 장모를 염려해 주는 말이나 조언을 해 드린다.	.76			
	30	나는 집안일을 결정할 때 장모와 상의한다.	.75			
장모에게 주는 서비스적 도움	14	나는 장모가 편찮으실 때 간호해 드리거나 병원에 모시고 간다.	.68	2.60	8.65	53.29
	15	나는 장모와 함께 장을 보거나 쇼핑을 하는 등 외출 시 함께 가 드린다.	.70			
	16	나는 장모의 집안 일(집안 보수, 못질하기, 전구 갈기 등)을 도와드린다.	.78			
	17	나는 장모가 손님을 치르시거나 일손이 부족할 때 도와드린다.	.81			
장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도움	1	장모님은 여행비용이나 행사비용(생일, 경조금 등)을 도와주신다.	.79	1.90	6.32	59.61
	2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가구나 살림살이)을 구입하려 할 때 장모님이 사 주시거나 금전적으로 도와주신다.	.83			
	3	돈을 급하게 써야 할 때 장모님은 돈을 빌려 주시거나 도와주신다.	.76			
	4	장모는 내가 아프거나 내 자녀들이 아플 때 병원비 지불을 도와주신다.	.76			
장모에게 주는 경제적 도움	5	나는 장모에게 용돈을 드린다.	.78	1.56	5.19	64.79
	6	나는 장모의 생활비 일부를 정기적으로 드린다.	.74			
	7	나는 장모의 여행비용이나 행사비용(명절, 제사, 생신, 김장 등)을 드린다.	.71			
	8	나는 장모가 필요로 하는 물건(가구나 살림살이)을 구입하려 할 때 사드리거나 금전적으로 도와드린다.	.75			
	9	나는 장모가 급하게 돈을 써야 할 때 돈을 빌려드리거나 도와드린다.	.61			
장모로부터 받는 서비스적 도움	10	장모는 손자녀 양육이나 교육을 도와주신다.	.73	1.06	3.52	68.31
	11	장모는 집안 일(가사)을 도와주시거나 김장, 밑반찬, 간식 등을 해주신다.	.75			
	12	장을 담거나 김장할 때 장모가 오셔서 도와주신다.	.74			
	13	장모는 내 자녀들의 식사준비나 간식 먹이기를 도와주신다.	.79			

〈부록 4〉 사위를 대하는 장모의 갈등적 태도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명	문항 번호	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설명량 (%)	누적 설명량(%)	
사위에 대한 불만 및 부당한 대우	1	장모는 남의 집 사위와 나를 비교하신다.	.61				
	2	장모는 딸(아내)의 음식과 의복 등은 챙겨도 나에게서는 무관심하시다.	.74				
	3	장모는 딸(아내)의 생일은 챙겨도 나의 생일에는 무관심하시다.	.69				
	4	장모는 처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나는 제외시킨다.	.68				
	7	장모는 딸(아내)에 대한 나의 간섭이나 잔소리를 싫어하신다.	.59				
	11	장모는 딸(아내)과 나 사이에서 딸(아내) 편만 드신다.	.66				
	13	장모는 딸(아내)이 맞벌이를 해야 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신다.	.54	12.54	34.83	34.83	
	14	장모는 동서와 나를 비교하신다.	.67				
	15	장모는 자신의 아들과 나를 차별대우 하신다.	.71				
	16	장모는 내가 아내 쪽 친척들의 대접 및 관계 등에 소홀하다고 여기신다.	.79				
	17	장모는 내가 아내 쪽 형제자매들의 대접 및 관계 등에 소홀하다고 여기신다.	.79				
	18	장모는 내가 장인어른에게만 잘한다고 여기신다.	.52				
	19	장모는 내가 처가 식구들을 대할 때 무조건 순종적이지기를 바라신다.	.68				
	부부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간섭	5	장모는 내가 나의 벌이에 비해 씹씀이가 크다고 하신다.	.52			
		6	장모는 나의 음주나 흡연에 대해 잔소리를 하신다.	.56			
		8	장모는 우리 부부가 살림살이를 알뜰히 하지 않는다고 잔소리를 하신다.	.54	2.33	6.48	41.30
		9	장모가 딸(아내)의 건강이나 사생활에 필요이상으로 관심을 쏟으신다.	.64			
		10	장모가 딸(아내)에 대해 필요이상의 간섭을 하신다.	.62			
	12	장모가 딸(아내)을 너무 위하신다.	.61				
장모의 이기적 태도	28	장모는 자신의 처장에만 많은 관심을 쏟으신다.	.76				
	29	장모는 자신의 처장을 위해 옷 타령을 자주 하신다.	.79				
	30	장모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 약 타령을 자주 하신다.	.75	2.21	6.13	47.44	
	34	장모는 내리사랑을 하지 않으시고 어른대접만 받으려고 하신다.	.61				
장모의 맹목적 손자녀 사랑	20	장모는 손자녀가 버릇이 없어질 정도로 귀여워만 해주신다.	.80				
	21	장모는 손자녀가 사달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주신다.	.85	1.83	5.08	52.51	
	22	장모는 손자녀가 버릇이 없어질 정도로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	.86				
가정 의례의 지나친 강조	31	장모는 제사나 손님 접대에 너무 예법을 찾으신다.	.83				
	32	장모는 옛날 관습 및 생활양식을 그대로 지키려 하신다.	.88	1.48	4.11	56.62	
	33	장모가 집안의 대소사를 너무 챙기고 중요하신다.	.77				
생활방식, 성격, 종교 차이	25	장모와 나는 생활방식에 차이가 있다.	.86				
	26	장모와 나는 성격차이가 있다.	.81	1.22	3.39	60.01	
	27	장모와 나는 종교차이가 있다.	.51				
결혼 전 태도	35	장모는 결혼당시 나의 경제적 준비상태에 대해 못 마땅 해하셨다.	.81	1.15	3.19	63.20	
	36	장모는 결혼당시 우리부부의 결혼을 반대하셨다.	.81				
손자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	23	장모는 손자(남자 아이) 출산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신다.	.79				
	24	장모는 손자(남자 아이)만 편애하신다(손자가 없는 경우, 손자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하신다).	.82	1.12	3.10	66.30	

〈부록 5〉 부양부담감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명	문항 번호	내용	요인 부하량	고유치	설명량 (%)	누적 설명량(%)
서비스적 부양 부담감	9	나는 처가를 방문해 집안일(못질하기, 고장 난 물건 고치기 등)을 도와드리는 것이 힘들다.	.82			
	8	나는 장모의 시중들기(운전하기, 물건 들어 드리기 등)가 힘들다.	.82			
	7	나는 장모의 건강을 돌봐드리는 일이 부담된다.	.79			
	6	나는 장모의 간호나 병구완으로 인해 힘이 든다.	.74	8.91	55.69	55.69
	10	나는 장모를 모시는 것이나(동거 시), 장모를 자주 찾아 뵙는 것(별거 시)이 육체적으로 힘이 든다.	.72			
	11	나는 장모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계셔서 육체적으로 피곤하다.	.65			
	12	나는 장모를 부양하거나 돌보는 문제로 신경을 써서 머리가 아플 때가 있다.	.64			
경제적 부양 부담감	3	장모 부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	.84			
	2	장모 부양으로 인해 가정의 매월 지출이 증가해 저축할 여유가 없다.	.82			
	4	장모께 드리는 용돈이나 생활비로 인해 경제 형편상 부담이 된다.	.79	1.57	9.80	65.48
	5	장모께 드리는 경제적 도움을 아내의 다른 형제자매들보다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75			
	1	장모가 본인에게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나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신다.	.51			
정서적 부양 부담감	14	장모 부양으로 인해 아내와 나 사이에 긴장이 발생한다.	.82			
	15	장모 부양으로 인해 아내의 형제자매 간에 긴장이 발생한다.	.82			
	16	아내의 형제자매들이 나에게 장모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준다.	.75	1.15	7.20	72.69
	13	장모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73			